

술 즐기고 남도음식 맛 아는 '역시 한민족'

북한 사람들은 '애주가(愛酒家)였다. 호텔 직원들을 통해 본 북한인들의 첫날 모습은 술을 즐겼고, 남도음식을 좋아하는 '한민족'이었다. 15일 아침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의 숙소인 무등파크호텔, 직원들은 빈 술병을 치우기 바빴다. 호텔 측은 전날 간부급 객실 14곳에 북한자 2명, 일반인 객실에 맥주 2병씩을 각각 비치했었는데, 술이 남은 방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음료수 등은 손도 대지 않고 오로지 술병만 비워왔다고 한다.

북어국·김치 등 한식 선호

북측 대표단은 환영만찬이 열린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도 북한자와 금메추, 맥주, 소주 등을 마시다 새벽 2시40분이 돼서야 호텔로 돌아왔다. 음식은 한식을 선호했다. 아침식사로 나온 람

호텔직원을 통해 본 북한 대표단 첫날

새벽까지 객실 비치 북분자·맥주 등 비워 "요플레 신기해요"... 시내구경 시도 무산

이나 콘플레이크 등에는 거의 손대지 않았고, 북어국과 김치 등으로 조출하게 요기했다. 북측 대표단은 특히 요플레 등 숏가죽으로 떠먹는 요구트를 신기해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리저리 살펴본 보고 먹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객실을 청소하던 직원들은 북한대표단이 온 천욕을 즐긴 것인지 때를 믿는 것 같은 흔적도 많았다고 전했다. 호텔 측은 하지만 때밀이 타율은 따로 비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정원은 북측 대표단을 '삼엄'하게 경호했다. 북측 대표단이 요구사항이 있으면 호텔 직원 대신 각 층마다 배치된 국정원 직원을 통해야 했다. 프린트와 연결되는 인터넷은 모두 끊겼다. 하지만 TV시청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국내 공중파 TV는 물론 케이블 TV, 북한 조선중앙방송까지 맘대로 채널을 돌릴 수 있었다고 한다. 지난 14일 밤 개막식에 참가하지 않고 호텔

에 남아있던 북측 대표단 2명은 "광주시내를 견학하고 싶다"면서 차를 불러달라고 호텔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제지해 나가지는 못했다. 호텔에 머물고 있는 국정원 직원은 150여명으로 북측 대표단(147명)을 1대1로 담당할 수 있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도에서도 정장·한복 입어

아직 남측 사람들을 경계하는 모습도 역력했다. 잡담을 하다가도 호텔 직원들이 옆으로 지나가면 잠시 말을 멈췄다. 북도를 가볼 때도 정장과 한복 등을 꼭 차려입는 등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개막식에 참석했다 새벽에 호텔에 돌아온 대표단들은 비에 흠뻑 젖은 옷을 다려달라고 요구, 직원들은 날이 새도록 다림질을 했다.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축전 이틀째 이모저모

6·15남북공동선언 6주년인 15일 광주에서 열린 6·15민족통일대축전은 '겨레는 하나'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작년 평양 출산 '통일 육동녀' 귀여움 독차지

○"이날 오전 10시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남북·해외 대표단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6·15공동선언실천 민족통일대회'에는 지난해 10월10일 평양을 방문했다가 출산한 황 선(32)씨가 '통일 육동녀' 윤계례 양을 안고 나와 북측 인사들의 귀여움을 독차지. 황씨는 윤양에게 "평양 할아버지들 왔다"며 "평양산원 선생님들께 우리 겨레가 잘 자라고 있다고 전해주세요"라고 부탁. 북측 대표단은 평양에서 돌잔치를 하고 싶다는 황씨의 말에 "꼭 오시오"라며 아기를 안고 사진을 찍기도.

특급요리사 20명, 남도음식 진수 선사

○"광주 무등파크호텔은 15일 밤 9시30분 호텔에서 이종석 통일부장관 주재로 열리는 '6·15선언 6돌 기념 축하연회'에 참석하는 북측대표단과 해외대표단에게 남도의 맛깔스런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에서 특급 요리사 20명을 불러오고 산지에서 직송한 재료를 쓰는 등 열의. 이날 만찬상에 오른 음식은 갓 잡은 쇠고기와 여수산 전복·활어 등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 만든 생선복 및 활어회·소머리초화·담양식떡갈비·꼬리찜·닭낭채·대하찜·소고기야채찜 등 21가지로, 호텔측은 "남도음식의 진수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

'경의선 타고' 등 통일노래 메들리 분위기 고조

○"조선대학교 운동장에서 이날 오후 7시 열린 6·15공동선언 6돌 기념 공연에는 안치환, 장운정 등 남측 인기 가수들과 '평양에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공각지' 등을 열창. 북측에서도 통일음악단이 나와 '반갑습니다' 등으로 화답. 특히 공연 말미에는 대표단과 공연단이 함께 '경의선 타고' 등 통일 노래 메들리를 불러 분위기가 고조.

'소망의 플래카드' 관광객 발길 붙잡아

○"북녘 어린이 그림전이 열리고 있는 옛 전남도청 전시관에는 '언젠가는 남남북녀가 서로 사랑해 혼인신고할 날을 기원하며', '남쪽도 북녘을 그리워하고, 똑같이 북도 남녘을 그리워합니다' 등 통일을 소망하는 글들이 전시관에서 마련한 '소망의 플래카드'에 적혀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기도. 전시관에서는 광주에서 서울을 거쳐 평양으로 가는 통일열차 승차권(어른용 615원·아동용 518원)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데, 양현웅(16)군은 "언제가 이 승차권은 꼭 사용하고 싶다"고 통일 열원을 괴려.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통일 미소

15일 오전 광주문화예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실천 민족통일대회에 참석한 북측 대표단이 환한 표정으로 한반도기를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환영 15일 오후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 남북여성연대모임에서 북측 여성대표들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입장하고 있다. 6·15 광주 사진공동취재단.

Table with 4 columns: 행사명, 내용, 시간, 장소. Lists various events for the 6.15 National Unity Grand Festival, including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A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columns of property listings. Each listing includes the agent's name, phone number, and details of the property such as location, size, and price.